

# 전북도 민선 8기 공모 526건 선정 ‘역대 최대’

산업·농생명·관광·교육 전방위 성과  
국비 4조 9천 581억원 확보  
첨단산업·이차전지 등 신산업 확보  
농촌기본소득·재해정비 생활 개선  
PT도지사 김지사 발표 5건 선정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공모사업 526건을 선정받아 4조 9천 581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16일 도에 따르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민선 8기 도정 비전 아래 산업, 농생명, 문화관광, 교육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각 부서별 기획과 대응, 시군과의 협력, 정치권과의 공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성과를 달성했다.

공모사업 선정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6,417억 원), 노후 거점 산업 경쟁력 강화(2,843억 원) 등을 포함해 산업단지의 첨단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특히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369억 원), K-Carbon 플러그인 기술개발(342억 원),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389억 원) 등 미래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농생명산업수도 조성을 위해서도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306억 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193억 원, 남원) 등 농업 혁신 기반을 강화했고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73억 원, 정읍),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105억 원, 익산), 지역혁신엔진(183억 원) 등 바이오산업에서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450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360억 원)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 강화, K-관광섬 육성(115억 원, 군산), 지역관광개발사업(142억 원)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정주환경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도 상당한 실적을 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8억 원, 순창·장수), 농촌협약을 통한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3,711억 원),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3,701억 원) 등 이를 통해 생활여건 개선, 재해 위험 해소, 균형발전 실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벌대학 30(4,620억 원, 전북대·원광대), 교육발전 특구(2,196억 원),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602억 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전북의 지역대학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굵직한 공모사업에 직접 나서 총 8건의 발표평가 중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5건을 선정으로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김 도지사의 이른바 ‘피티(PT) 도지사’라는 별칭이 등장할 정도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 리더십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에도 미래산업, 탄소중립, 인구소멸 대응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98건, 13,823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발굴한 상태다.

도는 중앙부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정치권 협력을 강화해 공모 선정률을 높이는 한편, 확보된 예산이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철태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다”며 “도민과 함께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정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전북대 총동창회 공로상 ‘영예’



지난 16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6 전북대 총동창회 시상식에서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사진=전북도체육회>

### 전주올림픽 유치 활동 주도 ‘성과’ 전국 최초 체육영재선발대회 추진

전북 체육계 수장으로 체육자본 확대를 통한 내실을 꾀하고 있는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공로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6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6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신년 교례회·동문대사 시상식’에서 정강선 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정 회장은 전북대학교 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회장은 민선 1, 2기 전북체육회장으로 전북 체육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체육영재선발대회 및 체육역사박물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체육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올림픽 유치 활동을 주도, 서울을 따돌리고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 체육으로 전북의 자존감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가다.

또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역대 최초 선수단을 이끌고 출전에 종합순위 8위를 달성, 국위선양에도 일조하는 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동반 성장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강선 회장은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임실

지난 16일 임실군청에서 열린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및 참석자들이 하계올림픽 유치희망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 농수산물식품 ‘7억불 수출’ 도전…판로 다변화 총력

두바이 시작 해외박람회 10회 운영  
美·日 등 거점유통 6곳 판촉 지원  
바이어 초청·B2B 상담회 상시 추진

전북도는 올해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 목표인 7억 불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판로 다변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외 박람회 참가, 거점 유통망 판촉, 바이어 초청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

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식품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방위로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세계 주요 식품박람회에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1월 두바이 박람회를 시작으로 모스크바, 도쿄, 상하이, 방콕, 뉴욕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연간 총 10회 홍보관을 운영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집중 알릴 계획이다.

이미 확보된 해외 거점 유통망을 활용

한 실질적인 매출 확대에도 주력한다. 미국(H마트, 홈쇼핑월드 등)과 일본(한식관) 등 주요 권역별 유통망 6개소를 중심으로 현지 시식·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촉 비용을 직접 지원해 수출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국내외 바이어와의 접점도 적극 넓힌다. 중대형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개별 바이어 초청 상담을 수시로 진행

해 수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농식품 수출 114’ 현장 행정을 병행해 기업들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통합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 현재 ‘2026년 농수산물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무역사절단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핵심 전락 시장인 베트남(호치민)과 일본(후쿠오카)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10개사 내외씩 총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무역사절단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jbexport.or.kr>)에서 가능하다. 선정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비즈니스 미팅 주선, 상담장 운영 및 통역 지원, 참가자 1인당 항공료 5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KOTRA 현지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 매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내 우수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道, ‘임실 치즈 명품화’ 본격…체류형 관광 키운다

16일 임실군 도민과의 대화 진행  
치즈테마파크 605억 규모 보장  
4성급 호텔 도비 지원 숙박 확충  
오수면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전북도가 임실군과 손잡고 치즈산업 명품화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선다.

도는 지난 16일 임실군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임실군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오수면관광단지 조성, 테마파크 기능 강화 등 임실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논의됐다.

도는 임실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605억 원 규모의 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 사업은 치즈아이랜드 조성, 농촌테마공원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실내 놀이시설인 트램폴린, 클라이밍 시설 등이 들어서면 가족 단위 체류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치즈테마파크 누적 방문객은 834만 명을 넘어섰고, 임실

N치즈축제는 지난해 61만 명이 찾았다.

섬진강 옥정호 일원에서는 제2기 에코뮤지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84억 원(도비 135억)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봉어섬 주변에 1.9km 수변데크와 420m 출렁다리, 3만㎡ 규모 주차장이 조성됐다. 2022년 10월 개장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방문객 175만 명을 기록하며 전북 동부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또 오수면 일원에서는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된다.

1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세계명견 아트뮤지엄과 펫케이션 숙박동, 야간 경관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 특화 관광지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개장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오수 반려누리와 국민여가 쉼터장은 운영 4개월 만에 이용객 2,100명, 동반 반려동물 740마리를 기록했다.

도는 임실군과 함께 숙박 인프라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임실군은 관광숙박시설이 2개소 15객실에 불과하고, 3성급 이상 호텔이 없어 방문객이 전주나 남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



16일 임실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지사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과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해 도는 치즈테마파크 내 4성급 관광호텔 건립에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지상 6층, 104 객실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며, 대회의실 등 컨벤션 기능도 갖춰 기업 행사 유치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임실치즈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故지정환 신부가 일군 임실치즈는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에 밀리

/장정철 기자

## 道, 순창군 생활 인프라 재정·행정 지원 강화

‘기본소득’ 도비 292억 투입  
군도21호선 10억 지원  
의료공백 해소 지원 확대

전북도는 지난 16일 오후 순창군 민예술회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순창군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청사진을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해 도로 인프라 개선,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순창군의 미래를 이끌 사업들이 나왔다. (관련기사 8면)

순창군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범지역 가운데 하나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292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며, 국비 389억 원, 군비 292억 원 등 총 973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충분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친 뒤 소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도의 지원이 이어진다. 순창~전주간 국도 27호선에서 인계면 심초마을로 이어지는 군도 21호선은 급경사와 불량한 선형, 좁은 도로 폭 탓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순창군은 2023년부터 총 680억 원을 들여 1.16km 구간을 폭 8m로 넓히는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됐다. 이

에 도는 10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기간 내 완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순창읍·인계면·풍산면 일원 93만㎡에는 미생물 산업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가 조성된다. 오는 2029년까지 도비 188억 원 등 총 859억 원을 투입해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통장류 안전 및 수출 확대 지원,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올해 2월 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공유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조성도 속도를 낸다.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은 175억 원(도비 75%)을 투입해 하천변을 친수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군청 앞 음악분수, 두물머리공원, 꽃길 조성 등이 골자로, 지난해 6월 1차 공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1차분 준공 후 잔여 공사를 이어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촌 의료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순창군에는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 9명이 배치돼 있으나, 근무 여건과 재정 한계로 추가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보건의료원 봉직의 1명 인건비(2억 원,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남원의료원 소속 의사가 유동보건의소를 주 1회 순회 진료하는 신규 사업도 가동한다. 의사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순창군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행·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 명절 성수기 앞두고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290곳 대상  
식육·포장육 등 50건 수거 검사  
표시기준·소비기한 등 집중 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

다. 이번 점검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290개소가 대상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0여 명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식육과 포장육, 햄세트 등 축산

물에 대해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5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부정 축산물 유통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화농·이물 등 이상 부위 제거 및 폐기 강화되며 전북 전역의 알레르기 표시 등 표시 기준 준수 여

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 처리 여부 ▲포장육 및 선물세트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완주 통합도 광역급 인센티브 줘야”

도,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환영”  
“통합시지리적 권역 중추도시형성  
재정·제도 광역급 뒷받침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함에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3특 내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의 통합인 만큼 광역 통

합에 준하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실질적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양시군의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권 중핵도시로서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심-배후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며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이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성장축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 혁신산

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권역 형성의 시금석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실질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으로서 광역 통합과 기초 통합 사이에서 중추도시 형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자치체 간 자발적인 통합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AI 미래운동회’ 개최

AI기술 활용 인공지능기술 체험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AI 미래운동회 & 창의 콘텐츠 대회’가 이달 18일, 25일, 31일 총 3회에 걸쳐 걸쳐 진흥원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AI·XR 등 신기술과 신체활동·놀이 요소를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도민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장에서는 ‘AI 미래운동회’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AI 비전 인식, 모션 트래킹 등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미션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생한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 콘텐츠 대회’도 열린다. 가족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해 영상·이미지·음악 등 창의적인 AI 콘텐츠를 제작하며, 전문가 특강을 통해 AI 기술 활용 방법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행사는 화차별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창의 콘텐츠 대회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RISE 사업과 연계한 세대공감형 콘텐츠 모델을 통해 전북형 AI·콘텐츠 교육 생태계를 확장에 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야 할 도로표지판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판)

내리막 경사  
(주의표지판)

노면 상태  
(보조표지판)

안개 지역  
(보조표지판)







# 전기안전공사 ‘사람존중 열린경영’ 연찬회 개최

## 국정과제에 발맞춘 전략 실행 다짐 재생에너지 전기안전 AI활용 활성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정읍 소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CEO 등 임원진과 본사 처·실·원장 및 사업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대국민 전기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연찬회는 지난 한 해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공유, 전문가 특강, '26년 현안사항과 본부별 업무추진계획 발표 및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6년 전기재해

감축 대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신규 검사업무 효율적 운영 방안 △전기안전 AI 활용 활성화 추진 방안 △본사 및 사업소 조직개편 방안 △현장 종결형 업무처리 방안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뿐 아니라 건강한 노사관계 조성, 현 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으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남화영 사장은 “연찬회를 통해 ‘사람존중 열린경영’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검사업무처리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 등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현장 효율과 국민안전 수준을 동시에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정읍 소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 전북농협, 축산물 위생·안전 특별점검

설 명절 대비 내달 11일까지  
농·축협 축산물 사업장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설 명절에 대비해 다음달 11일까지 농·축협 축산물 사업장에 대한 특별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축협은 수시 자체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본부에서는 20개소 이상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지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력번호, 원산지 표시사항, 폐기물 관리 및 축산물과 작업장의 위생상태, 냉동·냉장육 보관 및 관리상태, 위생복·위생모 착용규정 이행 철저, 위생교육 수료증 및 보관증 확인, 삼겹살 품질관리 등이다. 김성훈 본부장은“설 명절을 앞두

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심에 진심, 든든한 전북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축산물 품질안전 취약 시기인 명절(설, 추석 등) 및 하절기에 대비해 축산물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재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열어

##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 위해 적극 지원”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허수종, 새꿈농협 조합장)는 회원조합장 20명과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북경영인조합협의회 회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 지역농협들의 역할

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농업인 실익 중심의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허수종 회장은 “전북농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전북경영인조합장들이 중심이 돼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지역농협들 간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 현장중심의 농협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회원조합장 20명과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 전북TP ‘2026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프로그램 등 안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도내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2026년도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지난 15일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의 대표 및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운영 안내 △신규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신청서 작성 등 내용 설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수행방법 △기술개발(R&D) 및 자율프로그램 등 세부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이 변화된 지원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지원프로그램 안내와 개편된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했다. 이종환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경제의 핵심인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며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전북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지난 15일에 개최했다.

#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TF팀 구성 착수 회의 적용 가능 과제 발굴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지난 15일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또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총괄·제도반·농기계안전반·취약계층

인력안전반·시설·기반안전반·임업안전반)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로 ‘정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존 대책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해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 단장인 강동운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개선뿐 아니라, 실효성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

## 전북대병원, 몽골과 의료 협력 확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몽골 초그트체츠 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 의료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약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본원 3층 온고을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지난 10월, 몽골 남고비 주 초그트체츠 군에서 전북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견학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협약식에는 몽골 초그트체츠 군 다얀도르지 바트투브신(Dayandorj Battuvshin) 군수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전북대병원에서는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해 유인천 국제진료센터장, 김소는 대외협력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 질환 환자 진료 의료 및 최우선 의료 서비스 제공 △현지 의료 인력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우호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발전과 국제 보건의료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얀도르지 바트투브신 군수는 “이번 협약은 초그트체츠 군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라며 “전북대병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몽골 보건 의료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초그트체츠 군과의 협력은 의료 진료뿐 아니라 교육까지 아우르는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환자 중심의 의료로 선도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전문가 컨설팅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진흥원)은 오늘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 등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팅 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에 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분야는 △경영전략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지원 △마케팅 △판로개척 등 총 14개 분야로 구성된다. 기업별 애로사항에 맞춰 전문 컨설팅

트를 1:1로 매칭함으로써 단순 상담을 넘어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설팅은 예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연중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 신청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각 분기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다음 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에 접속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 수립

## 전북교육청,소통참여 공정·투명 비전…감사원 ‘성과향상기관’ 선정

전북교육청이 ‘2026년 전북교육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 했다.

전북교육청의 ‘2026년 전북교육 자체 감사 계획’은 △소통과 참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북교육 비전이 목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현장 지원 중심의 사전예방 감사 △자율적 내부 부패통제 시스템 강화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둔다.

종합감사는 감사주기(3년) 및 기관(학교) 규모를 고려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총 53개 기관(학교)

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 스스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업무 전반 감사와 자율적 시정·개선하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희망학교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외 ‘특정감사’, ‘복무감사’, ‘민원·사안조사’, ‘사이버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감사를 병행해 감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감사원 표창을 수상했으며 ‘성과향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연수와 기관 및 학교의 눈높이에 맞춰 예방감사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이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 했다. 전북교육청의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은 △소통과 참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북교육 비전이 목표다.

## ‘2026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진학대상자’ 배정

총 6153명 확정

전주시 중학교 진학대상자 총 6153명 배정이 확정됐다.

지난 16일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결과 1지망 배정률은 93.39%로 전년도 보다 2.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지망내 배정률은 99.77%로 전년도 0.27%p 증가했다.

2026 전주 중학교 진학대상자는 615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입학생보다 691명 감소로 확인됐다.

2026 입학생 인원 감소에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인구소멸 관계에 따른 이유로 집계됐다.

배정 확인 결과는 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학생들은 해당 초등학교 개인별 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오는 20일부터 배정받은 중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여해 입학 안내를 받아야 한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동계스포츠 교육 기반’ 구축

### 스키 선도교원 연수 운영 동계스포츠 교육 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중심 ‘동계스포츠 교육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2025년 동계스포츠 활성화 위한 스키 선도교원 연수’를 2기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동계스포츠 활성화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 학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참여 확대 선순환 구조가 목적이다.

특히 학교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동

계스포츠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서는 14개 각 시군에서 선발된 초·중등 스키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스키 실기 지도 및 안전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스키 교원들은 단위 학교에서 학생 대상 △동계스키 캠프 △현장체험학습 △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선도교원 네트워크 운영과 현장 적용 사례 확산을 통한 동계스포츠 교육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인프라 연계한 학생 중심 학교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지방시대위원회>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호서대 방문·초청 강연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창업거점 대학교’를 내용으로 초청강연을 한 뒤 반도체 교육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인 지역대학·청년·산업의 역할을 공유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지방의 경쟁력은 도로·산단 같은 물리적 인프라 확충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며, 다시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지방이 국가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서대학교가 추진 중인 산학협력·창업 성과를 언급하며, 대학이 지역 혁신의 실행 주체로 자리 잡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기업·지

역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며, “호서대가 구상하는 ‘아산형 실리콘밸리’는 5극3특 전략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호서대학교 반도체 교육시설인 패키지 랩을 방문해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환경을 직접 둘러봤다.

대학의 패키지·테스트 장비와 클린룸 등 현장 중심 교육 인프라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된 실무형 인재 양성 모델이야말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라며, “이러한 교육 인프라가 지역 산업과 결합할 때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지역대학이 인재와 기술, 창업을 연결하는 혁신의 거점이 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 작동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선수단, 동계체전 쇼트트랙 메달 사냥 성공

### 노아름 금메달 김이현 은메달 수확

제107회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한 빙상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는 등 전북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2월 25-28일에 펼쳐지는 전국동계체전을 앞두고 사전경기로 빙상 종목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스피드에 이어 쇼트트랙에서도 메달을 추가 확보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펼쳐진 빙상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1500m에 출전한 노아름(전북도청)은 2분29초141를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정상에 올랐다.

또 여자 대학부 1500m에 나선 김이현(한국체대)도 3분07초684를 기록하며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날 메달을 추가하면서 빙상에서만



제107회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한 빙상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는 등 전북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김이현(왼쪽), 노아름(오른쪽)

현재까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확보한 상태다.

빙상 종목은 18일까지 사전경기로 펼쳐졌다.

/장정철 기자

### 국립군산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혁신IR시스템구축

지난 15일 국립군산대학교는 ‘IR시스템 구축 중간보고회 및 사용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8월 착수한 IR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과 교직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와 관련해 데이터 기반 대학 경영 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국립군산대 IR시스템은 행정 효율화와 과학적 분석을 핵심 축으로 설계됐다.

성과분석에서는 ‘학사’, ‘연구’, ‘산학협력’, ‘입학’, ‘취업’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77개 영역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W)와 데이터 마트(DM)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핵심 경영 지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국립군산대는 이달 말부터 IR시스템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겨울철

독감

생활속 예방수칙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

실내 습도  
40~60%로  
유지 하기

손으로 눈, 코  
입등 만지는  
습관 자제하기

과로는 피하고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균형잡힌 식사로  
면역력 높이기



## 익산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부속건물 지붕의 경우 철거는 최대 700만 원, 개량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참고·측사 지붕은 슬레이트 면적 기준으로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시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2026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가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히 보급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 시범사업은 경쟁력 있는 군산농업 육성을 목표로 5개 분야 22개 사업에 총 13억 2,900만 원을 지원하며, 2월 13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통해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세부 시범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1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농촌지원 분야 5개 사업 △특수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 등을 포함한 작물환경분야 7개 사업 △박과채소 2기작 재배 작형 발굴 시범사업 등 소득작목분야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박홍순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군산농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6개국 청소년 '평화의 꿈 탐방단' 오키나와 여정 성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6개국 청소년 22명이 '평화의 꿈 탐방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의 오키나와에 방문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여정을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문화탐방'의 특화사업으로 마련됐다.

탐방단은 본 여정에 앞서 6회에 걸친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을 쌓았다.

군산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지구시민교육을 통해 인권, 환경, 평화의 가치를 학습했으며, 오키나와 현지에서 선보일 퍼포먼스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며 탐방의 주제로 참여했다.

지난 14일 오키나와 현청 앞 광장에서는 대금과 가야금 등 국악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서로 다른 국적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처음 배운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만들어내는 국악 선율에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항근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편견 없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헌율 시장 ‘익산 치킨벨트’ 건의

## 송미령 장관에 “산업 기반 완벽…정부 구상의 최적 파트너”

이재명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치킨벨트 사업에 익산시가 손을 들고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5일 정책 점검차 익산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치킨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 익산시를 모델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지난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K-미식벨트를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 ‘치킨벨트’를 포함한 미식벨트 신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건의는 익산시가 보유한 독보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치킨벨트 지정의 선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정 시장은 이날 송 장관에게 “익산은 국내 최대 닭고기 기업인 하림 본사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부터 가공, 유통, 물류에 이르기까지 닭고기 산업의 전 과정이 한 도시 안에서 완결되는 전국 유일의 산업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익산이 정부 치킨벨트 구상의 베이스캠프가 되어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치킨벨트 사업에서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명소와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화’를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익산시가 이미 민간 참여로 조성

해 운영 중인 ‘치킨로드’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정 시장은 “정부의 치킨벨트 구상이 실제 산업적 성과와 글로벌 브랜드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준비된 도시 익산이 거점이 돼야 한다”며 “민간의 열정과 시의 행정 지원이 하나로 움직이는 익산을 치킨벨트의 모델도시로 발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 체계적 성장 지원…내달 28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정읍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사업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를 전격 도입하고 내달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초기 청년 기업에 시가 공신력을 부여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최종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기업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정읍시청 미래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인증제가 청년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맞춤 개편 추진

##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중간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 추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별 노선체계 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대중교통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운수업체 관계자, 관계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선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번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설문 조사를 통해 총 2,437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9월부터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총 3차례 리빙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노선을 설계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아울러 군산시는 시내버스 승·하차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자료 등 다양한 교통·생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동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선 중복과 굴곡을 개선하고, 통근·통학·읍면·관광 등 목적별 이동 특성에 맞는 노선체계를 설계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분석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간선제 기반의 노선체계 개편안이 제시됐다.

먼저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통근 노선은 도심과 산업단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가로형 광행 노선 구축이 핵심이다.

도심권~새만금북로~산업단지(비음

항)를 연결하는 급행 간선노선을 운영하고, 오식도동 등 산업단지 내부 주거 지역과 근로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산단 내부 세로·분산형 DRT 3.0 서비스 도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통학노선 및 도심권 순환노선은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20분 배차의 순환형 노선체계를 통해 등하교 시간을 단축하고, 혼잡 시간대 버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권 이동 편의를 위한 소풍·수송·미장~조촌·월명동을 연결하는 동서축 순환노선과 미룡~나운·월명~경암~수송동을 잇는 남북축 순환노선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선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 농업 미래 키운다…농촌지도사업 본격화

## 48억 투입 인력육성 등 5개 분야 50개 사업 운영

익산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지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올해 농촌지도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농촌지도사업은 △인력육성 △농촌자원 △귀농귀촌 △식량작물 △소독작물 등 5개 분야 총 50개 사업에 약 4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은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과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도 추진된다. 서동마와 생강 등 지역특화 소득작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 지원도 강화한다. 귀농정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과 농자재 지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농촌지도사업 신청 대상은 개별 사업 기준에 맞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이다. 국비 사업의 경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익산사랑장학재단과 나눔곳간에 기부활동을 했거나 자원봉사자, 수상자에 대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시는 현지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2월 개최되는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촌지도사업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며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익산 농업의 초석이 돼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노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군산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해당 부담금은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과되지만,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감면

율은 5%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납부 기한인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산시청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연납이 인정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익산시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지원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간다.

익산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기본·필수·맞춤서비스 39종으로 구성된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상황,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기본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아동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필수 분야로 △건강검진 △아동 6대

교육 △부모상담 등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1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 분야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으로 이뤄진 4개 항목에서 △밀착한 지원 △언어치료 등 26종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 분야 서비스에서 가족 지원 기능을 강화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가족운동회’와 ‘부모 힐링 활동’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 개인의 성장과 지원을 넘어 가족단위의 정서적 안정과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아동 성장의 기반이 되는 가정환경을 더욱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16억 투입해 벼 병해충 잡는다

정읍시가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5일 개최한 ‘병해충 방제사업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벼 병해충 방제를 포함해 토마토 빨나방, 과수 화상병, 기후변화 대응 돌발 해충 등 4개 사업에 총 16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하고, 농가에 보급할 약제를 선정했다.

특히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급증하는 벼멸구와 깨씨무늬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묘상자 처리제’를 활용한 초기 방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정된 약제를 농가에 신속히 공급해 사전 방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수한 안전 사용 지도를 강화해 방제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임플란트 지원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료를 미뤄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의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임플란트까지 확대하며 의료 복지 혜택을 강화했다.

정읍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지원 항목을 넓혀 1인당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동시에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

감 대상자’다. 단, 과거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7년 이내에 치과 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 검진 결과와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지소(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저하된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고창군 ‘기업환경 체감도’ 입지 우수

## 전국 6850개 기업 대상 설문 전북 유일 전국 톱10 포함

전북 고창군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 분야 우수지역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사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기초지자체 행정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바탕으로 창업·입지·행정 3개 분야의 우수지역 톱10을 선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입지 분야에선 규제 완화와 부지 활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 기초지자체 선호가 확인됐으며, 입지 톱10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창군이 포함됐다.

앞서 고창군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년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 평가하며, 고창군은 인구 7만 미만 시군 그룹 1위를 차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창군은 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 기업 애로 해소율 79%를 기록했으며, 증축 신고·허가 지연 해소 등을 통해 연간 50억 원 규모 매출 증가 효과를 창출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 16건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고창 신활력산업

단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선정으로 국가 예산 4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확충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연계, 정주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묶은 원스톱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성장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새만금개발청 편향 바로 잡겠다”

## 새만금특별소, 새만금 신항 MP재수립 유지 위한 행보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가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제외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의 시도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제294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인 지난 15일 새만금개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규탄 결의대회’에서 확인된 김제시 19개 읍·면·동 주민들과 시민연대 등 500여 명의 염원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배제하고 배후부지를 타 지자체와 연계 개발하려는 편파적인 MP 재수립안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새만금특위는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의원과 시민연대 위원이 2인 1조로 참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전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시위는 출근 시간대에 진행되며, 새만금 신항의 MP유지를 촉구하는 김제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오승경 위원장은 “국가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방관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김제시민의 강

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의대회에서 집결된 시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제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서백현 의장은 “새만금 신항은 김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동력인 만큼 정당한 명분 없이 기본계획에서 이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김제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새만금개발청의 편향된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의 정당한 권익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도 결의문 발표와 언론 대응 등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제6기 SNS 축제 서포터즈 모집

## 30일까지 접수 3월부터 활동 예정

부안군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부안의 대표 축제를 홍보할 제6기 부안군 SNS 축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부안 축제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제13회 부안마실축제’와 하반기 ‘2026 부

안불은노을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 일정, 현장 등을 생생한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첫 시도 ‘성황’

## 정책 사각지대 해소 현장 체감도 제고

김제시는 지난 16일,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에서 관내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특히, 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김제경찰서 등 총 5개 기관

이 함께 참여해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로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이해도와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설명회에서 △김제시 소상공인 3-STEP(창업·성장·위기극복) 단계별 10대 주요 지원사업 안내 △정부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개(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지원,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 설명(전북신용보증재단) △경영환경 개선 등 6대 주요사업(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보이스피싱·노수 방지 등 범죄 피해 예방 교육(김제경찰서)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됐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분산돼 있던 정

책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1월부터 2월까지 본격적인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에 돌입하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첫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 31일까지 50% ↓

고창군이 농가 경영난 해소와 농촌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전격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농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이삭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 고질적인 일손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고창군은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연장에 따라 고창군 농업인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전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정책이 농가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계화 영농을 통한 작업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지역 농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감면 연장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농기계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용 전 안전 점검과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사고 없이 안전한 영농 활동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장애인 재활센터, 이용자 호응도 ↑

### 전문 재활 서비스 제공

김제시 장애인 재활센터가 지역 장애인들의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장애인 재활센터는 지역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3,882명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 인력 및 맞춤형 재활 환경을 구축한 장애인 재활센터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숙련된 전문 인력을 배치해 개인별 맞춤 재활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슬링, 레그프레스, 하네스 트레이닝 등 24종 25개 전문 운동기구와 작업치료 도구를 완비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또, 신체적인 장애로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가정에서 센터까지 차량으로 이동 지원하는 원스톱 장애인 재활 이동지원도 병행해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재활 건강관리사업도 실시해 1:1 맞춤형 재활운동, 행태개선, 심리지원, 건강체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재활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신체 기능 회복을 앞당기고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인재활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민원과, 병오년 새해맞이 친절 교육

### 공감·소통 행정 정착

부안군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민원과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원들은 새해 친절 모토인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번 더 감동을’과 이달의 친절 문구인 ‘문턱은 낮게, 친절은 높게!’를 복창하며 친절 실천을 다짐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025년 12월)을 바탕으로 전문성, 예절, 소통을 의미하는 민원 응대 3대 기본원칙(3C)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러한 친절 문화가 전 부서로 확산돼 민원 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스스로를 낮추고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마음을 갖춘다면 군민이 느끼는 감동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농촌지원분야 시범사업 신청

### 2월 6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는 2026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월 6일까지 농촌지원분야 농촌지도사업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농촌진흥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 농촌지도사업은 7개 사업(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 농산물 디자인 개발 지원, 농촌자원 활용 자유농장 육성,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으로, 젊고 강한 차세대 농업인 육성, 지역 농업에 기반한 6차산업 확대, 농가소득 증대 및 가치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현지심사, 발표심사, 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설명회’ 성료

고창군이 지난 15일 고창군보훈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설명회’를 열고 제도도입 취지와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읍·면주민행복센터 팀장과 담당자,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책과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등 총 3명이 방문해 제도 설명을 진행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총 4개 바우처 중 본인 바우처 급여량의 20% 내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농기계 면허·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신청자 접수

고창군은 오는 27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기계 면허·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필수 장비로 자리 잡은 드론과 소형 특수농기계(굴착기, 지게차, 로우더)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농기계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현재까지 총 126명의 자격취득을 지원했으며, 소형 특수농기계는 총 939명의 면허취득을 도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은 이론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비행실습 20시간 등 총 60시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농업인들의 정밀한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는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과정은 작동 원리부터 운전 조작, 안전사고 예방 실습까지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돼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고창군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다. 교육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해 두 가지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26일~2월 13일까지 가족센터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부안군가족센터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6년 부안군가족센터 서비스·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가족센터는 매년 요구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 경험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연간 사업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이번 요구도 조사는 가족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은 물론, 가족센터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 현황과 향후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운영 중인 서비스 전반과 온가족보듬사업에 대한 인식 및 연계 필요성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안군 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SNS,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부안군가족센터 센터장은 “이번 조사 역시 지역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남원시 66억 투입 축산악취 개선 총력

**가축분뇨 시설·약품 지원 확대  
민원 잦은 지역 중심 역점 추진  
축산농가 30% 깨끗한 농장' 목표**

남원시가 축산냄새를 줄이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66억원을 투자해 축산악취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악취저감 약품 지원, 가축분뇨 이용·운송처리비 지원, 악취중점농장 컨설팅 축산현장에 꼭 맞는 사업들이 포

함됐다.

특히, 축산악취개선사업(19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13억원), 축산용미생물제 보급 지원사업인 에코프로바이오틱스이용 활성화사업(19억원) 등 축산분야 모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끌어 냈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축산악취에 대한 민감도 상승과 귀농귀촌 증가로 주거지와 축산시설이 가까워지면서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과 농장을 중심으로 개선사업

농가의 30% 이상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축산냄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농장 10여곳을 대상으로 악취관리 수준 진단을 통해 농장주의 개선의지를 높이고, 냄새 민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축산농가와 함께 적극 노력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문화재단, 지역 예술기업 동반성장 '우수'

**장애인합창단 '꽃' 지원 성과  
지역 협력모델 확산 공로**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지역 문화예술과 기업의 협력 기반을 확장한 공로로 '2025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에서 우수재단으로 선정돼 지난 15일 공식적인 시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공동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 후원 문화확산과 지역 기반 협력모델을 구축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재단·예술가(단체)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기업 103건, 재단24건, 예술가(단체)67건

등 총 194건이 접수된 가운데 완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장애인합창단 꽃'과 함께 협력한 지역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완주문화재단은 무장애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매칭과 메세나사업 등을 운영하며 참여형 후원구조 구축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왔다는 평가다.

유희태 완주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예술 기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더 많은 기업과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농번기 대여 대비  
양수기 점검 '영농 지원 강화'**

완주군이 농번기를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점검을 실시했다.

완주군 주민은 '완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읍·면에 양수기 대여를 신청할 경우 필요 시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농번기 대비와 함께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하천기반과 기반조성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모품 교체와 수리 등을 진행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양수기 정상 작동 여부 △각종 정비 공구 보유 상태 △엔진오일 상태 △송수호스 파손 여부 등으로, 농번기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발생 시에도 읍·면에서 자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농민들은 해당 읍·면을 통해 정비가 완료된 양수기를 즉시 대여할 수 있어 농번기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하천기반과장은 “양수기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순차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순창군 방문 '도민과의 대화'

**군민 400여명과 도정 비전 공유  
군의회·장애인복지관 방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지난 16일 순창군을 방문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도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여민유지(與民由之)'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방문은 주요 도정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첫 일정으로 순창군정을 찾은 김지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공무원들의 환영 속에 순창군의회를 방문해 최영일 군수, 손종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도정 운영 방향과 순창군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장애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악을 비롯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이 격려하고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했으며, 시설 이용자들이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6일 순창군을 방문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도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도>

이어 군민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지사는 순창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 순창군민들은 △인계심조(군도 21호선) 도로 확보장공사,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사 채용 지원, △유기동물 관리체계 지원, △청년월세 개선 및 취업 멘토링 확대 등을 건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

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순창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직접 장보기에 나서며 경기둔화와 고급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지역 상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한국형 퀵스타트 연계 일자리 매칭 '성과'

**DH테크노벨리 현장면접 진행  
6명 교육 후 정규 채용 합격**

완주군이 지역 투자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해 6명의 구직자가 ㈜DH테크노벨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자리 매칭데이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DH테크노벨리지점의 인력 채용을 전제로, 최근 해당 사업장에서 열렸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DH테크노벨리지점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인력으로 최종 선발됐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전에 선발한 뒤,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정규 채용으로 연계하는 정부 지원 인력양성 사업이다.

이날 현장면접에는 총 9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합격한 6명은 앞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현장실습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수한 뒤 정규 채용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행사는 (사)전북산학융합원(원장 강승구) 주관으로 추진됐다.

㈜DH테크노벨리지점 관계자는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2026년 8월까지 총 2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기업 운영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일자리 매칭데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사전에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데 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DH테크노벨리지점과 ㈜골드베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각 25명과 10명에 대한 채용 확약을 바탕으로 기업 중심의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비봉 행정복지센터·화산 생태탐방로 논의

**군수 연초방문 현안 현장점검  
“현장 의견 군정에 반영”**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16일 비봉면과 화산면을 차례로 방문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주민들과 직접 논의했다.

비봉면에서는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노후화된 기존 청사를 대신해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며 현재 설계공모 재추진을 앞두고 있다. 군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청사 배치와 주차 공간 확보, 공공시설 연계 방안 등에 대

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군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산면에서는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사업은 경천저수지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해 탐방로와 전망대, 전통정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탐방로 개설과 주요 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주민들은 탐방로 이용 안전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건의했으며, 군은 안전간간 보완과 안내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추가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행정동우회, 고향사랑기부 후 답례품 '재기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전달  
답례품 150만원 물품 기탁**

지난 15일 남원시 행정동우회(회장 이광우)가 남원시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기부에 따른 고향사랑 답례품 150만원 상당 역시 남원시동부노인복지관에 필요 물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남원시 행정동우회는 행정공무원 퇴직자 모임으로 2023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성금 모으기 사업을 추진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00만원씩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



서고 있다.

이광우 회장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겠다”고 기부소감을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찾아가는 클리닉' 등 맞춤형 금연 지원 강화

**1:1 상담추적관리 등 성공률 제고**

순창군이 새해를 맞아 금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군민들을 위해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흡연은 폐암 사망의 71%, 만성 호흡기 질환의 42%, 심혈관 질환의 10%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단순한 만성질환뿐 아니라 결핵과 하기도 감염 등 감염성 질환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순창군보건의료원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에서는 △1:1 전문상

담 △니코틴 패치·껌 등 금연보조제 지원 △금연 성공 단계별 맞춤형 추적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금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금연 지속률이 낮은 중·장년층과, 금연 의지는 있으나 보건의료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금연을 결심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건강한 삶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2026년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예비 귀농 청년 4가구 우선모집  
7년간 정착률 63% 기록**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생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을 이달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총 8가구(원룸형 3가구, 투룸형 3가구, 게스트하우스 2가구)를 모집하고, 이 중 4가구는 남원시 피움하우스와 연계해 청년 대상 우선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전 1년간 임시 거주하며 지역 생활을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착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영농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초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생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할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사진=남원시>

기 정착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신청서와 모집공고문은 귀농귀촌 플랫폼 사이트(그린대로)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은 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해 심사가 진행된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2019년 조성 후 지금까지 7년간 총 입주자 57명 중 36명이 남원에 정착하며 63% 정착율을 기록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김명곤기자









### 정읍 수성동 일광사, 장학금 200만원·백미 쾌척

정읍시 수성동에 위치한 포교사찰 일광사(주지 승천스님)가 지난 16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정읍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일광사는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한 백미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부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일광사는 지난 2017년과 2023년에도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승천 스님은 “지역의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자비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김제 용지면 임상교회, 취약계층에 100만원 기탁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임상교회가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임상교회 신도들이 매월 소액을 정기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평소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종욱 장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 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받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임상교회는 지난 2018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들의 학업 및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주)데코산업, 익산시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

### 청소년들 꿈 응원하는 나눔

익산시에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16일 ‘(주)데코산업’으로부터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청소년 가운데 성적 우수자와 특기 적성·직업기술 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자원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익산시 특수시책이다.

이관영 대표는 “경기침체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익산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새해를 출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데코산업은 영등동에 위치한 귀금속 제조회사로, 금·은 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되는 등 수출 증대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는 지난 16일 (주)데코산업으로부터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 남원시 김태령 어린이, 생일마다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

### 2024년부터 3년째 나눔 실천

지난 16일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김태령 어린이가 3년째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령 어린이는 2024년 아동 2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자신의 생일을 맞아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도 생일을 기념해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아동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령 어린이와 그 부모님은 “생일을 맞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김태령 어린이의 기부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큰 울림이 있다”라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시민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장수 장계면지사협, 나눔 감사의밤 행사 개최

#### 김문철내과의원에 감사패 전달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장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에 봉사와 후원을 지속해 온 단체 및 후원자를 초청해 ‘나눔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복지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랜 기간 변함없는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김문철내과의원(원장 김문철)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임재성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성마리오농장, 순창군에 흑염소 진액 기탁

#### 3천만원 상당 흑염소 진액 기탁

(주)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농장(대표 김바오로)은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3천만원 상당의 흑염소 진액 219박스를 기탁했다.

성마리오농장은 경남 고성군에서 건강기능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임주여건이 좋은 순창 풍산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흑염소진액, 유기농 현미콩요소 등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4년째 꾸준히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김바오로 대표는 “추운 겨울철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어르신들이 옮겨올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는 성마리오 농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진안 주천면 고윤재 씨, 대를 잇는 이웃사랑 실천

진안군 주천면(면장 김종길)은 지난 15일, 구암마을에 거주하는 고윤재 씨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성금 전달을 넘어 ‘대를 잇는 나눔’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동안 고윤재씨의 부친인 고영성씨는 평소 깊은 애郷심으로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왔으나, 최근 연로해짐에 따라 아들인 고윤재 씨가 그 뜻을 이어받기로 한 것이다.

고윤재씨는 성금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계실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우리 지역의 나눔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평강채씨 야수공 종중, 부안군에 성금 50만원 전달

부안군 줄포면은 평강채씨 야수공 종중(회장 채봉석)은 지난 15일 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평강채씨 야수공 종중은 오늘날 ‘남당회맹단’이라고 불리는 의병을 창의하고 전라도 고창과 부안에서 왜적에 맞서 싸운 가문이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 채홍국은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병으로 기억되고 있다.

평강채씨 야수공 종중 관계자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나눔이 겨울철 추위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발령(2026년 1월 16일 자)

- ▲ 차장 김상경
- ▲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 ▲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병석

## 겨울철 야외 활동시 안전수칙



기상청, 날씨 앱 등으로 사전에 기상청정보 파악 하기



얇은 옷 여러벌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보호 합니다



활동전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근육이완을 합니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 합니다



핫팩을 가지고 다닌다.



〈一事一言〉



K-AgTech로 여는 전북 농업의 플랫폼 대전환

김관춘  
주필

지난해 연말, 김창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전북연구원이 주최한 한 포럼에서 “에그테크(Ag-Tech)를 통해 농업의 플랫폼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불안, 농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생산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밀려오는 오늘의 농업 위기는 더 이상 부분 처방이나 단기 대책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김 전 원장은 전북연구원이 주최한 ‘백년포럼 43강’에서 이러한 농업 위기의 본질을 짚으며 해법으로 에그테크 중심의 플랫폼 농업 전환을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AI가 설계하고, 데이터가 실행하며, 사람이 완성하는 플랫폼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팜 장비를 보급하거나 자동화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이 데이터와 AI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농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에그테크는 Agriculture(농업)와 Technology(첨단기술)의 합성어로, 2010년대 초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본격 확산됐다.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에너지 기술이 농업과 융합되며 농업을 하나의 고부가가치 산업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개념이다.

김 전 원장은 이를 ‘플랫폼 전환(Platformic Transformation)’

이라고 규정하며, 기존의 시설·장비 중심 농정 패러다임이 디지털·AI 기반 구조로 이동하지 못한 점을 한국 농업의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AX(AI Transformatio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X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과 조직의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전환을 뜻한다.

김 전 원장은 “AI는 에그테크의 두뇌이고, 에그테크는 AI가 작동하는 몸체”라고 표현하며, 두 요소가 결합될 때 농업 혁신의 속도와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예측 농업, 맞춤형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전북형 에그테크 전환은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증하며 확산시키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농업 데이터의 공공적 축적과 개방, 지역 단위 실증단지 조성, 스타트업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구축 등은 플랫폼 농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생산 현장에서 축적되는 토양·기후·생육·유통 데이터가 민간 혁신과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에그테크 전환은 농업 소득 안정과 직결되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 도입이 비용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다

계별 지원과 성과 공유 구조를 마련하고, 청년 농업인과 기술 인재가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

전북이 에그테크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환경 지속가능성,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면, 이는 농촌 소멸을 막는 실질적 해법이자 국가 농정 전환의 선례가 될 뿐 아니라 결국 전북의 선택과 실행력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좌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은 국내에서 가장 유리한 출발선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된다. 김제-남원-장수를 잇는 스마트농업 삼각벨트, 국가식품클러스터, 생명공학·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 등은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농생명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축’ 구도 속에서 AX 기반 연구·실증 거점으로 도약할 잠재력도 충분하다.

더 나아가 에그테크 기반 플랫폼 전환은 농업 정책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농정이 개별 농가 지원과 시설 확충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표준과 알고리즘, 서비스 설계가 핵심 정책 수단이 된다. 이는 행정의 역할 또한 집행 중심에서 설계·조정 중심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전북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다면 농업은 더 이상 낙후 산업이 아닌, 기술과 인재가 모이는 전략 산업으로 재인식될 수 있다. 플랫폼 농업은 곧 농업의 미래 경쟁력

을 좌우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다.

그러나 과제 역시 분명하다. 고령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 한계, 데이터 표준화와 AI 실증 기반 부족, 민간 투자와 소프트웨어 중심 생태계의 취약성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혁신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인을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플랫폼의 핵심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김 전 원장은 전북형 에그테크 AX 비전으로 ‘데이터·AI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전환 허브, 전북’을 제시하며 ‘데이터·AI 기반 혁신 △기후스마트·탄소중립 농업 △인재와 기술이 순환하는 혁신 생태계 △민간 투자와 시장 연계 강화’라는 4대 전략을 강조했다. 이는 농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제 전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에그테크를 단순한 시범사업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의 플랫폼 전환을 이끄는 국가적 실험장이 될 것인가. 구조적 전환의 골든타임을 길지 않다. 전북이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농업 혁신을 선도할 때, 농업 위기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사설

결정은 끝났다, 2036 올림픽은 전북 전주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가 전주와 전북으로 결정된 지 1년이 되어 간다. 대한체육회는 2025년 2월 28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북 전주를 유치신청도시로 최종 확정했고 표결 결과는 전북 49표, 서울 11표라는 압도적 차이였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계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충분한 검토와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 모두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단체와 개인이 ‘서울 유치’를 다시 거론하며 전북 유치를 흔들고 있다. 일부 종목을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등 타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도시의 한계 자인’이라 폄훼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 대안론을 거론하는 행태는 언어도단에 가깝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시한 ‘올림픽 여젠다 2020+5’의 핵심 정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IOC는 이미 대규모 시설 경기장과 과도한 재정 투입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 활용과 분산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전북 전주의 유치 전략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충실히 반영해 저비용·고효율, 지역간 연대라는 3대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북 32개 종목을 중심으로 서울·경기·광주·대구·대전·충청·호남권까지 연계하는 분산 개최 구상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는 감점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이를 문제 삼아 서울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집단적 판단을 무시하는 자기독단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 유치 주체의 혼신을 노출시키는 국익 훼손 행위다. 실제로 해외 유력 매체들이 이러한 기류를 근거로 ‘전북 유치 추진 난항’으로 보도한 바 있다.

전북예향본부 등 도내 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하며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적 과제인 올림픽 유치를 정치·감정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국제행사 유치심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하고 전북 유치의 정당성을 분명히 해야만 근거 없는 ‘서울 대안론’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전체로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올림픽 유치는 특정 지역의 명예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직결된 사안이다. 국내에서조차 합의된 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후보지를 둘러싼 잡음을 스스로 키운다면, 국제 경쟁에서 신뢰를 얻기란 요원하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는 이미 결정된 국가적 선택이다. 이를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들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 체육계, 언론 등 모두는 전북 유치 성공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문화재열전



**해동원목조석가여래삼존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목조, 불상  
-지정일 - 2001년 9월 2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익산시 군익로11길 29-11 (모현동1가)

▲오늘의시

아직과 이미 사이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의 이미지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머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닳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아직과 이미 사이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 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 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사면으로 7년여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을 출간했다.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2026년 남원시정 신년설계]

## 남원 대도약 위한 드라이브 '시동'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남원시가 올해 △민생 회복, 국립기관 유치△미래신성장 산업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강소도시 만들기 등 '5대 시정 핵심 과제'에 행정력을 총결집하면서 민선 8기 시정 대변혁을 완성하고 '더 큰 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지난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시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민선 8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써온 자랑스러운 도전의 역사를 이제는 위대한 성공의 역사로 시민 여러분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저와 우리 시 전 공직자는 2026년, 8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선 8기 대변혁의 남원을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추진,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제 2중앙경찰청 유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2030년에 완공될 경찰수련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공기관 거점 도시 남원'으로서 더 비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남원의 변화와 혁신은 올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큰 남원의 대도약을 위해 올해 더 힘차게 뛰겠다"면서 새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2026년 남원시정설계 밑그림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찰수련원 조감도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시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세부 실시설계와 용지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이로써 시는 2028년 1단계 개관까지 해당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제2의 양지인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유소년 인재 양성 생태

K-바이오 선도 도시 남원으로 더 나아가 예정이다.

공중산업 역시 공중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 생산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공중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해 온 바 26년도에는 공중산업 기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2단계 사업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글로벌 관광 '천만문화예술 관광도시' 구현 '합파우 아트밸리' 조기 완공 추진

그 뿐 만이 아니다. 남원시의 올해 '천만문화예술 관광 도시'만들기 전략도 이목을 끈다.

남원시가 현재 관광루원 중심의 도심권 관광 동선을 합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 등 문화, 관광 성장의 토대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합파우 아트밸리는 마스터플랜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대울림목공예관·어린이예술마당·디지털 테마파크, 도자전시관 등은 순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했다.

이에 지난해 어린이예술마당·디지털 테마파크는 착공한 데 이어 남원 현대울림목공예관, 승월교 리모델링 등은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합파우 아트밸리 조기 완공을 추진하는 등 관광과 시민 모두가 어디서든 즐기고 체류하고 머무를 수 있는 남원관광 1,000만 시대를 조속히 열 계획이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관련 문화산업 기업 및 연구소 유치가 용이해지며,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합파우 일대를 전통 국악과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생산 기지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수도 남원 올해 남원시는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전후 기지로 더 거듭날 예정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기존 사업 선정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지난해 87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대한민국 미래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내 임대형 스마트팜(333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24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66억원), 친환경 에너지타

운 조성(182억원)을 원활히 추진, 이로써 청년농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유도, 지역농업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등 남원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남원·순창 광역 소각시설의 폐업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본궤도에 오른 만큼 시는 지난 2025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본 사업을 올 상반기 설계를 마친 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과 생활인구 증대를 꾀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주여건 개선 통해 '살고 싶은 강소도시' 만들기

한편 남원시는 '살고 싶은 강소도시 남원 만들기'를 위해 올해 출산·교육·복지시스템 완성으로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신·출산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다.

먼저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제로화'를 추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아이 낳기 좋은 남원'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평일 시간 위주에서 주말과 공휴일 전일 진료체제로 전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365일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주하고 싶은 도시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교육여건'은 올해 더 좋아진다. 실제로 올해 7월에 인재학당 '만인재'가 본격 개관할 예정으로 이로써 지역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시는 이와 연계해 '사회교육 격 없는 학습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남원시는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196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학 교복합시설' 도 조성, 동부권의 오랜 교육·체육 인프라 박달감을 해소할 전망이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청년 만원주택 '피움하우스'를 208호까지 확대하고, 지리산 활력타운(87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58호) 조성 및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망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민생 회복 '최우선' 민생안정지원금 설 전에 지급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올해 첫 학기 시작 제2중경유치 행정력 집중 '경찰교육 특화도시' 실현 등

□ '민생회복' 최우선, 남원 대도약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경찰교육 특화도시로 도약  
민선 8기 4년 차로 접어드는 2026년 최경식 호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목표는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하는 것과 국립기관 유치를 통해 남원을 공공기관 거점 도시, '경찰교육 특화도시'로 빌드업시키는 일이다.

이를 방증하듯 시가 새해 가장 급선무로 추진한 일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7만 6,032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20만원씩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인상을 유예하는 등 내수진작을 위한 각종 민생대책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중장기적으로 더 큰 남원의 도약을 위해 '국립기관 유치'에 사활을 거는 등 민선 8기 후반을 만족시킬 액션 플랜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그 일환에서 올해 남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분야에서 시작될 듯 하다.

먼저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꼽히는 '전북대 남원글로벌 캠퍼스'가 드디어 올해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커머스, K-엔터테인먼트 등 특성과 학부를 중심으로 250명의 대규모 청년 외국인 유학생 귀환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27년 남원개교를 목표로, 올해를 정주여건·생활지원·국제화 기반을 완성하는 실질 준비의 해로 정하고 주요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갖춘 '남원 글로벌 캠퍼스 지원 종합 추진계획'을 실행하며, 유학생 정주 지원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산업연계 교육 및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시민참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정주기반 확립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舊 남원세무서 부지에 연 면적 약 5,500㎡, 250명 규모로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을 본격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통합지원 거점센터 기본계획도 구상하는 중이다.

더불어 시는 올해 국립기관 유치를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먼저 제20대 대선 전북 지역 공약사업인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남원 종합 스포츠타운 일원에 총사업비 490억 원(국비)을 투입, 다목적 체육관, 체조 훈련장, 2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제2중앙경찰청교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 만큼,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후보지 분석 용역에 적극 대응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드론·바이오·공중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민선 8기 4년 차로 접어드는 남원시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은 더 무궁무진하다.

남원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드론, 바이오, 공중산업 등 핵심 과제가 올해 더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론 산업의 경우, 그간 남원시가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3년 연속 선정, 남원시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드론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 산업 성장 기반을 갖춘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올해는 국산 우수 핵심기술을 활용한 드론 레이싱 대회 국제화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드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드론레이싱대회와 남원국제드론제전을 3년 연속 성공 개최에 힘입어 올해는 드론 제전을 시민 중심 체험형 축제이자 드론·로봇 산업박람회로 고도화하여 이를 통해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글로벌 드론스포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 산업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 기술, 기업,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차세대 식물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사업' 추진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등을 통해